

소리에 대한 정신의학적인 고찰 (四物法樂器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구병수

1. 서 론

선대의 우리네 음악관에서는 우선 소리의 출발부터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¹⁾ 禮記에서는 “凡音之起 由人心生也”이라하여 모든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서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²⁾

소리는 우주 공간의 구성 요소로 자리하고, 우리 인간이 생겨나기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이렇게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인 소리는 또 다른 자연구성물인 인간과 떨어질수 없는 관계를 맺어 왔음을 알 수가 있다.³⁾ 현대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소리가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음악이나 원초적인 자연의 소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소리 중에서도, 어느 민족이나 종족도 자기 고유의 독특한 소리나 음악을 간직하며 살고 또한 그런 민속음악은 치료효과도 높다고 하였다.⁴⁾

불교는 민족의 고유의 종교는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미 우리 의식 깊숙이 간직 되어져, 불교 음악이나 음악은 심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불교음악중 선음악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법이 아님이 없듯이 정신세계를 일깨워 주는 선율은 선음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는데,⁵⁾ 이는 불교 자체의 포용성을 의미하고 있다.

사상체질로 구분하여 서양 음악으로 음악치료를 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

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⁶⁾ 다른 종교에 대한 음악적인 연구는 있지만,⁷⁾ 불교의 흡이나 四物樂器의 흡에 대한 심리적인 연구는 처음으로 생각된다.

이에 인간의 심성을 움직이는데, 사찰에서 울려나오는 佛敎四物法樂器를 중심으로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 인간은 각각의 다른 종교 및 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종교적인 다른 무의식을 가지고 살고있으므로, 종교적인 음악을 이용하여 심신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데, 서양음악을 이용한 음악치료의 효과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사료되어 조사하였다.

2) 소리는 전적으로 氣의 표현 방식으로 볼수가 있는데, 지금 氣의 이해를 위해서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氣의 이해의 한 방편이 된다고 사료되어 조사하였다.

- 2) 李相玉 譯: 禮記(中) 樂記 十九, 서울, 明文堂, P. 208, 1988.
- 3) 임윤희: 음악속에 숨은 의학, 서울, 청암문화사, P. 23, 1992.
- 4) 임윤희: 음악속에 숨은 의학, 청암문화사, 서울, P. 35, 1992.
- 5) 김도완: 禪武學術論集(佛敎音樂의 禪精神考), 第2輯, P. 363, 1992.
- 6) 조운용: 건강생활을 위한 음악요법 백과, 서울, 한성음악출판사, 1993.
- 7) 이지일: 성서에 나타난 諸 음악에 關한 고찰,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1982.

1) 한명희: 우리가락 우리문화, 서울, 조선일보사, P. 96, 1994.

3) 山寺에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공통의 감정인데, 이런 감정의 발생에 대한 이론이 정립이 된다면, 임상적으로 한방신경정신과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조사하였다.

2. 방법

1) 樂學軌範과 禮記을 중심으로 한의학적인 면에서만 조사하였다.

2) 佛敎四物法樂器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농악의 四物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3) 음악적인 이론 보다는 음향학이나, 철학적인 면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본 론

1) 소리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1) 소리와 音, 樂에 대한 고찰

音과 樂 그리고 소리에 대한 구분은 애매한데, 소리는 포괄적인 개념이 있다. 음은 악의 조건이자 토대이고, 악은 음을 선택하고 질서를 부여하며, 음과 악은 상호보완적이라고 하였다.⁸⁾ 音에 대해서 字源에서는 音의 口속에 一이 들어 있어, 一은 말이 입밖에서 나올 때 성대를 울려 가락이 있는 소리를 뱉을 나타내고, 본 뜻은 金石絲竹匏土革木이 내는 소리이며,⁹⁾ 이는 소리의 재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리 중에서도 音節의 韻에 대해서는 쉽게 정신의 量으로 불러워 질 수가 있으며, 인간의 마음은 보여지는 象 즉 빛이나 단어들 또는 소리의 단위에 의하여 생각한다고 하여,¹⁰⁾ 소리에 정신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음의 개념으로는 음악을 구성하는 단위인 音은 이미 문화의 일부이며, 소리는 공기의 진동에 따라 우리의 귀에 수용되는 모든 종류의 소리, 즉 말소리 자연의 소

리, 소음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 音은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가 되는 소리만을 가리키며, 음은 소리의 일종이며, 소리가 영어로 sound, 음은 tone으로 구분하고, 또한 音은 4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로 분석되는데, 진동의 물리학적 성분에 따라 소리의 높고낮음, 크고 작음, 길고 짧음, 맑고 탁함에 상응하는 音단위의 4가지요소로 물적세계에서 심적세계로의 동형론적 변화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¹⁾

물리적변수	감각적변수	지각적변수
진동수	소리	음(단음)
빈도(주파수)	고저	높이(음고)
폭(진폭)	강약	크기(음량)
시간(진동시간)	장단	길이(음가)
모양(파형)	질	색채(음색)

소리의 속도 혹은 주어진 방향으로 매시간 단위내에 간 거리는 그 매개체와 그때의 온도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진다고 하였다.¹²⁾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인간은 소리가 사계질의 六氣의 변화에 의하여서도 변화가 발생함으로, 심적인 영향이 달리 나타날수가 있는데. 이는 인간이 계절에 따라 달리 소리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른 이유로 생각된다.

또한 자연의 구성 요소이자 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은 인간과 몸과 마음에 저항없이 받아들여져 인간의 본질로 작용하고, 리듬은 수축과 이완의 반복이라 할 수가 있으며, 생명운동과 직결된 리듬이란 요소는 태아에게 음악적 체험으로 가능하게 하여, 음악이 지닌 독특한 성질에 의하여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음악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음악자극은 인간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¹³⁾ 한국의 전통 음악

9) 漢韓大辭典編纂部: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P. 2045, 1982.

10) HIMALAYAN INTERNATIONAL INSTITUTE OF YOGA SCIENCE & PHILOSOPHY OF THE U.S.A, Mantra Meditation, Honesdale, Pennsylvania., 1992. PP. 23-24.

11) 이석원: 음악심리학, 서울, 심설당, P. 90, P. 93, 1994.

12) 서우석 譯: 음악학이란 무엇인가, 은애, 서울, P. 45, 1981.

13) 임유희: 음악속에 숨은 의학, 서울, 청암문화사, P. 24,

8)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1), 서울, 한길사, PP. 54-55, 1995.

은 서양 고전 음악에 비해서 비교적 한배 즉 속도가 느린 것이 분명하고, 서양의 템포 개념은 맥박, 곧 심장의 고동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그것은 호흡의 주기 즉 폐부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한국음악에서 안온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모데라토의 기준 속도는, 1분간의 심장의 박동수와 호흡의 주기와의 차이처럼, 서양 음악의 그것에 비하면 무려 3배쯤 느린 것임을 알 수 있고, 한국의 전통음악이 유창한 맛에 정적인 명상성을 질게 드러내는 것은 폐부의 속성 때문이고 서양의 전통음악이 발달한 분위기에 동적인 진취성을 강하게 띠는 것은 바로 심장의 속성에서 배어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하였다.¹⁴⁾

음악에 대한 氣의 설명으로 살풀이를 해석한 것을 인용하면, “균형이 깨어질 때 깨닫지 못한 정신과 몸이 된다. 4방위와 하늘 땅 곧 5방과 과거 현재간에 대한 순수하지 못한 태도는 이윽고 정신과 육체의 불균형, 한마음이 아니라 두마음을 품게되고, 조화되지 못하여 불균형의 두 몸이 된다. 살의 맺힘은 氣의 흐름도 맺혀 얼굴과 피부색의 변화를 일으키고, 氣의 변화의 이상은 장부의 이상을 가져온다. 소리는 진동에 의하여 생긴 에너지이고 보면, 장단과 소리 가락에 의하여 계속되는 기화의 운동성은 에너지화하여 진피를 자극함에 따라 오장육부가 운동하는데 고유로 가지고 있는 소리의 진폭과 장단이 자극되어진 그것과 일치할 때 각각의 진동수와 공명 현상을 일으킬 때, 몸의 맺힘은 품의 효능성으로 극대화한다”고 하였다.¹⁵⁾ 이러한 인체 자체의 소리에 대한 진동은 외부에서 오는 소리나, 내부에서 발성을 하여도 같은 이치로 내부의 장기가 진동하는데, 여기서 주의하는 것은 아주 큰 소리의 진동은 다르나, 可聽의 진동수가 臟器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 즉音を 받아 들일수 있는 마음의 주파수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외부의 진동수에 대하여 인체가 받을수 있는 내부의 자체의 진동수와 공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체의 복잡한 시스템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음도 또한 치료를 도우주는 하나의 요소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적어도 피부가 음을 판별하고 있고, 인체에 흐르는 경락과 음향의 연구에 의하면,

각 經의 고유 진동수(F/ minute)는 肝經(108) 膽經(120) 心經(126) 小腸經(120) 脾經(132) 胃經(132) 肺經(126) 大腸經(108) 腎經(120) 膀胱經(112) 心包經(176) 三焦經(152)라 하여, 매트론음을 數에 맞추어서 經穴을 두드리면 各經絡에 效果를 준다고 하였다.¹⁶⁾ 인체에 유효한 진동수인 f분의 1 진동 이론은 음의 주파수를 Y축으로 하고, 음의 강도를 X축으로 할 때, 음의 강도와 주파수가 반비례하여 경사각 45도를 나타내는 직선이 있는데, 템포나 리듬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자리하는 음악은 정서적으로 사람을 안정시키고, 우주가 만들어진 이래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는 f분의 1 진동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것은 五感을 통해 인간의 정서를 안정시킨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 증명 되었다고 하였다.¹⁷⁾

소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또 다른 것은 자석의 힘(자기장), 전기의 힘, 빛의 파동과 입자이지만, 이것들은 귀를 통해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리와는 다르고, 옛날의 신화에서는 소리와 영혼을 같은 차원으로 생각한 것 같으며, 소리의 높이, 크기, 길이, 모양(맥시)이 네가지는 인간들이 소리라는 인식하는 구조의 틀이라고 하였다.¹⁸⁾

고대에서 음의 기준에 대해서는, 황종의 특정한 음고를 취주해 낼 수 있는 대나무 율관을 만들고, 그 대나무의 길이를 황종척이라고해서 길이의 척도로 삼았으며, 또한 그 죽관의 내부에 기장을 채우고 거기에 채워진 기장의 양과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각기 부피와 무게의 기본 단위로 삼았는데, 우리네 전통적 음악관에서 중심음의 개념은 단순한 물리학적 계산 범주를 뛰어 넘어, 곧 자연의 조화내지는 질서의 차원으로 연결이 되고 오묘한 우주 섭리의 지평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¹⁹⁾

14) 한명희: 우리가락 우리문화, 서울, 조선일보사, PP. 31-33, 1994.

15)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1), 서울, 한길사, PP. 165-168, 1995.

16) 洪珪植 譯: 침술의 신비 중국의학과 X-신호계, 서울, 探求堂, PP. 78-79, 1993.

17) 반광식 譯: 腦內革命, 서울, 사람과책, P. 158, 1996.

18) 永田 晟: 健康 體力つくりハントブック, 東京, 大修館書店, 1983.

음악에 쓰이는 5음을 오행에 병치시키고 12음을 각 기 12支와 12월에 대입시키며, 악기의 재료까지 八風에 맞춰서 八音이라고 명명하는가 하면, 그들 악기의 치수며 색깔까지도 음양원리에 상응시킨 점 등은 모두 음악의 관념적인 측면을 확인시켜 주는 구체적 예이다.²⁰⁾

八音은 음의 높이나 크기와는 상관없이 소리의 음색으로, 八音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물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소리가 서로 어울릴 때 좋은 소리가 난다는 우주론적인 생각과 연결되어 있으며, 동양에서 소리의 어울림이나 화음의 개념은 높이가 다른 소리의 어울림이 아니라 음색이 다른 소리의 어울림인데, 원시인들은 음색으로만 소리를 인식하였고, 우리가 말하는 높은 소리, 낮은소리, 큰소리, 작은 소리도 음색으로 인식하여, 오늘날에도 모든 음색은 그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²¹⁾ 八音은 악기의 총칭으로, 그 재질에 의해서 8종류로 분류가 되고, 八種에는 金石系竹匏土革木으로, 金에는 鐘 鐃 鐃 鐃 등의 多種있고, 石에는 돌로써 만들어진 磬에는 여러개를 병행해서 音階를 연주하는 編鐘 編磬이 있으며, 系에는 琴 瑟 箏 등의 현악기로 구성되어 대나무의 피리를 여러개 병행한 것으로 笙 竽등이 있고, 土는 埙이라는 도기의 피리가 있고, 木에는 祝 敵있고, 革에는 太鼓있는데, 형태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종류로 분류하는데, 특히 八音 가운데 金石 革이 중요시 된다.²²⁾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악 사상은 자연과 인간의合一을 최고의 경지로 삼았으며 이러한 자연 사상은 필연적으로 자연 속에서 음악의 원리를 파악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자연의 사상은 악기를 만드는 데도 적용되어, 八音이란 쇠붙이로 만드는 金部, 돌로만든 石部, 비단실로 만든 絲部, 대나무로 만든 竹部, 박통으로 만든 匏部, 흙으로 만든 土部, 가죽으로 만든 革部, 나무로 만든 木部로 구분하였고, 八陰은 陰陽五行의 八卦에 상응한다고 하였다.²³⁾

樂學軌範序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합일 사상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며, "樂也者出於天而寓於人 發於虛而成

於自然"²⁴⁾ 라하여 음악이란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사람을 위한 것이며 인위적이 아닌 자연속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음악이 참 음악이라고 생각하였다.²⁵⁾ 이와같이 악기의 재료까지도 자연에 의해서 생성된 재료로 사용하여 자연적인 음을 이루어내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음양오행의 자연사상을 음악에 적용하여, 12음 중에 홀수 음은 陽律이라하고, 짝수는 陰呂라고 한다.²⁶⁾

五音은 음악에 사용하는 5가지의 총칭으로, 12律이 음의 절대적인 높이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五音은 음의 상대적인 관계로, 더욱이 후에 宮과 徵의 각각의 半音低가 되어서, 變宮과 變徵이 加하여져서 七聲으로 발전하였다.²⁷⁾

樂學軌範의 五聲圖說을 찾아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⁸⁾

	性	若
宮 中也	圓其聲	牛之鳴窮
商 章也	方其聲	羊之離群
角 觸也	直其聲	雞之鳴木
徵 祉也	明而辨物其聲	豕之負駭
羽 字也	潤而澤物其聲	馬之鳴野

한의학적으로 五音에 대하여 宮音은 思를 치료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것과 지나친 情志질병을 치료하고 그 성질은 衝和 沈靜 壓重 典雅 正和脾之志은 이것은 思의 특징이며 宮音은 脾胃의 기능을 북돋우고 후천의 본을 촉진시키고 脾思의 感情衝動을 조율하여 思의 情志疾病을 치료하고, 商音은 金에 속해 그 성질이 맑고 높고 낭랑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商音은 肺와 그것이 주로하는 憂愁悲哀가 일으키는 情志질병을 치료할

20) 한명회: 우리가락 우리문화, 서울, 조선일보사, P. 97, 1994.

21) 김혜숙, 어울림, 서울, P. 68, P. 73, 1993.

22) 日原利國: 中國思想辭典, 東京, 研文出版, P. 349, 1984.

23) 張師勛: 국악총론, 서울, 경음사, p. 184, 1985.

24) 原本國語國文學叢林(原本樂章歌詞, 樂學軌範, 時用鄉樂譜) 서울, 大提閣, P. 85, 1985.

25) 張師勛: 국악총론, 正音社, 서울, P. , 1985.

26) 張師勛: 국악총론, 正音社, 서울, P. , 1985.

27) 日原利國: 中國思想辭典, 東京, 研文出版, p. 139, 1984.

28) 樂學軌範, PP. 131-132.

19) 한명회: 우리가락 우리문화, 서울, 조선일보사, P. 93, P. 95, 1994.

수 있고, 角音은 木에 속하며 音韻은 연하고 부드러우며 후련하고 舒達하고 정상일 때에는 肝의 志를 和하기 때문에 怒로 肝을 상하는 情志질환을 치료하고, 氣를 順하게 하여 志를 和하게 하고 情志를 발양시키며, 徵音은 그 성질은 활발하고 열정적이며 기쁘면서 안정되고 듣고 난 후 흥분하고 열렬한 느낌을 주어 불이 확대오르는 것 같으며, 徵音은 心의 志를 치료하는데, 너무 지나친 喜情의 情志질환을 치료하고, 羽音은 물과 같고 그 음운의 성질은 유창하고 약동하며 유쾌한데 소리가 아주 짧고 높고 맑은데 놀래서 腎을 傷하는 情志질환환자는 이러한 종류의 물흐르는 소리같은 羽音을 들은 후에 補腎益精에 이룰 수 있고 정신을 건강하고 정력이 왕성하게 하고 진작시키며 회생시키는데, 청각과 기억의 민첩함과 교묘함을 증강시키는데, 이는 五音이 유도하는 일정불변의 법칙으로 順情施樂療法 부리며, 이밖에도 宮商角徵羽 이 다섯가지 音중에서 음악 리듬 선율 및 樂理에 의해 五正音의 처음에 “太,少,正” 三音으로 貫하고 또 演化하여 “太宮,少宮,正宮” “太商,少商,正商” “太角,少角,正角” “太徵,少徵,正徵” “太羽,少羽,正羽” 등 15종의 등급의 소리를 나타내었다.²⁹⁾

樂學軌範에서는 音을 陰과 陽으로 나누어서, 六陽의 소리는 黃鐘 太簇 姑洗 蕤賓 夷則 無射로, 六陰의 소리는 大呂 夾鐘 仲呂 林鐘(小呂) 南呂 應鐘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氣의 盛衰의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를 樂學軌範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⁰⁾

黃鐘	子之氣也	冬至	乾之初九
大呂	丑	大寒	坤之六四
太簇	寅	啓蟄	乾之九二
夾鐘	卯	春分	乾之六五
姑洗	辰	清明	乾之九三
仲呂	巳	小滿	坤之上六
蕤賓	午	夏至	乾之九四
林鐘	未	大暑	坤之六二
夷則	申	處暑	乾之九五
南呂	酉	秋分	坤之六二
無射	戌	霜降	乾之上九
應鐘	亥	小雪	坤之六三

29) 李浚川主編: 情志醫學, 中醫古籍出版社, P. 59-62, 1992.

內經 靈樞에 經脈編에 “余聞人之合于天道也, 內有五臟, 以應五音 五色 五時 五位也. 外有六腑 以應六律 六律建陰陽諸經, 而合之十二月” 이라하였고, 六律은 陽律을 말하며, 黃鐘 太簇 姑洗 蕤賓 夷則 無射가 있고, 陰律에는 林鐘 南呂 大呂 夾鐘 仲呂가 있는데, 이를 六呂라 하여, 합쳐서 律呂라고 한다. 또한 靈樞 陰陽二十五人³¹⁾과 五音五味篇³²⁾에 보면 聲으로 인체를 25가지로 구분하고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體質과 音聲의 关联性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체질의 감별에 소리의 응용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亞 型		
五音	陰陽屬性	태도
上角 大角 欽角 左角 判各	足厥陰 左足少陽之上 右足少陽之上 右足少陽之下 左足少陽之下	은화하고 점잖다 은화하여 양보를 잘 한다. 진취적이다 양순하다 정직하다
上徵 質徵 右徵 少徵 質徵	手少陰 左手太陽之上 右手太陽之上 右手太陽之下 左手太陽之下	진실하다 언행이 떳떳하고 정당하다 활기가 있다 의심이 많다 낙천적이어서 자족해 한다
上宮 大宮 少宮 左宮 加宮	足太陰 左足陽明之上 右足陽明之上 右足陽明之下 左足陽明之下	성실하다 유순하다 원만하다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다 쾌활하다
上商 欽商 左商 少商 右商	手太陰 左手陽明之上 右手陽明之上 右手陽明之下 左手陽明之下	과단성이 있다 칭림결백하다 是非를 잘가린다 위엄이 있다 소탈하고 거리낌이 없다
上羽 桎羽 大羽 衆羽 少羽	足少陰 左足太陽之上 右足太陽之上 右足太陽之下 左足太陽之下	俚俗하다 한가롭고 안정되어 있다 득의양양하다 침착하다 소탈하지 못하다

30) 原本國語國文學叢林(原本樂章歌詞, 樂學軌範, 時用鄉樂譜), 서울, 大提閣, PP. 118-121, 1985.

31) 裴秉哲 譯: 今釋黃帝內經 靈樞, 서울, 成輔社, P. 471, 1995.

32) 裴秉哲 譯: 今釋黃帝內經 靈樞, 서울, 成輔社, PP. 480-487, 1995.

2) 종교적인 측면에서 음악에 대한 고찰

불교에서의 음악은 色과 形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통하여 버려, 틀림없이 空과 같은 것이 되고, 空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아니며, 역시 空에 있어서는 실존이 되는 것으로, 음악은 순간에 있어서 울리고, 순간 가운데 消失되어 버리므로, 色이나 形도 없다는 의미에서, 종교에 포함이 되어 지는 것이라고 하였다.³³⁾

불교의 음악관은 음률관, 수관, 철학관으로 나누고, 음율 음악 모두는 天然定法, 인위적인 의지 조작이나 改變하는 것이 아니라, 法音(法然之音)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인식하기를 音律의 源泉은 만유진리의 眞如라고 한다. 觀無量壽經에서는 “如天寶幢 不鼓自鳴 此衆音中 皆說念佛念法念此丘僧 ”³⁴⁾라 되어 있고, 인간들의 음악 음률이 명료하게 生生不止하는 苦에 통과하여 열반의 즐거움에 돌아가서 음성과 세상의 다른 事物이 共同的 道理로 因하게 된다고 하였다.³⁵⁾ 특히 梵唄의 본뜻은 天然歌唱 혹은 淸淨의 소리, 梵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즉 자연의 음악이라는 의미이다.³⁶⁾

음악이라는 것은 전달보다는 통찰감정이 여하히 움직여 가느냐 하는 것의 인식이기 때문이며, 음악의 내용은 Symbol에 의하여 나타나며 그가 가까이하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통찰인것이다.³⁷⁾

유교에서는 樂은 禮와 더불어 儒家에 있어서 內外修養 治世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즉 樂은 내적 수양이라면 禮는 외적 治世의 방법으로서 유교적 전통의 수양논으로 정착되었으며, 공자는 음악을 배우는데 있어 단지 기술적인 것만을 터득함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스며든 혼과 정신을 감지하려했고, 나아가 그 정신을 발현시킨 구체적인 인격주체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先奕時代에서는 樂을 통해 정서순화와 和音 전달에 깊은 관심을 가져던 것으로 이해 되었기 때문에, 樂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널리 전파되어 있었으며, 인심을 정화시키는데 반드시 樂을 등장되는 경우도 많았다.³⁸⁾ 도교에 있어서는 老子的 道德經 12章에서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에서 음악을 부정하고 있거나, 41章에서는 “大音希聲 大象無形”이라 하였는데,

이는 音은 다듬을수록, 장점이 없어지는 것으로 無爲만을 추구할 따름이라고 하였고,³⁹⁾ 老子가 말한 이 말의 본의는 분명히 소리를 빌어 道가 인간들의 聽覺器官이 능히 파악할 수 없는 어떤 것임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청각이 미치는 바의 音으로 말하면 道는 無聲之音이라 하였다.⁴⁰⁾ 莊子 역시 六律 등의 인위적 음악을 부인하고 있거나, 자연과 더불어 음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2) 불교 四物法樂器에 대한 고찰

佛敎四物은 사찰에서 사용되는 불교 타악기로서 法鼓, 雲板, 木魚, 梵鍾을 大四物이라하여 주로 불교 예불 의식에 사용되며 태칭 목탁 바라 요령 경쇠 등을 小四物이라하여 불교의식 음악인 범패와 불교의식 무용인 작법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⁴¹⁾ 그외의 法器로는 鈺(小鐺), 鈴은 堂이나 塔의 치마 끝에 鈴이 달려있으며 風鈴 혹은 金鐸이라 부르며,⁴²⁾ 鐸 鼓 鈴 糖 木魚 錢을 稱하여 吹打라고 하였다

四物樂器의 공통성은 모두 타악기인데, 이는 세계각국의 민속악기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물건을 두드려 음악이나 춤의 리듬이 만들어진 것은 먼 옛날 부터이며 그 착상은 다른 악기류에 비해 훨씬 원시적이라 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⁴³⁾ 타악기에 있어서 有律

34) 釋秀雄: 觀無量壽經講話, 서울, 흥법원, P. 120, 1987.
35) 胡 耀: 佛敎與音樂藝術, 天津, 天津人民出版社出版, P. 108, P.112, 1992.
36) 胡 耀: 佛敎與音樂藝術, 天津, 天津人民出版社出版, P. 6, 1992.
37) 홍윤식: 불교와 민속, 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P. 82, 1993.
38) 柳聖泰: 東洋의 修養論, 서울, 學古房, PP. 357-358, P. 362, P.363, 1996.
39) 盧台俊 譯解: 新譯道德經, 서울, 흥신문화사, P. 48, P. 148, 1987.
40) 呂基鈺 編譯: 中國古代樂論, 서울, 太學社, PP. 112-113, 1995.
41) 白鐘杰: 佛敎四物에 관한 연구- 禮佛儀式에 쓰이는 佛敎四物의 演奏法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42) 周文柏 主編: 中國禮儀大辭典,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 P. 543, 1992.
43) 白鐘杰: 佛敎四物에 관한 연구- 禮佛儀式에 쓰이는 佛敎

33) 菊村紀彦: 불교와音樂, 東京, 大藏新書, P. 107, 1983.

打樂器는 金部에 속하는 편종 특종 방향 운라 등과, 石部에 속하는 편경, 특경 등이 있고, 일정한 음정이 없는 無律打樂器는 제작재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金部(자바라, 징, 라, 대금, 소금), 木部(拍 祝 敵), 土部는缶, 革部는 장고 鼗鼓 節鼓 座鼓 小鼓 龍鼓 敎坊鼓 路鼓 雷鼓 靈鼓 靈蕤등으로 나눈다고하였다.⁴⁴⁾

사물 악기의 재료를 살펴보면, 악기의 분류 방법으로 金石絲竹匏土草木의 여덟 가지 재료로 구분법이 있는데, 이로 만든 악기를 八音이라고 하고, 그중 사물의 악기는 金(編鐘 特鍾 方響 鉦 喇叭), 革(장구, 羯鼓, 座鼓, 節鼓, 소고), 木(拍 祝 敵) 3가지에 모두 포함이 된다.⁴⁵⁾

먼저 梵鍾을 살펴보면, 梵鍾은 사찰의 종으로 옛날 인도에서부터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의 범종 즉 한국종은 중국 梵鍾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梵鍾의 시원에 대해서는 고대의 악가의 일종인 古銅器의 종을 모방했다는 설과, 종과 鐸이 혼합된 형식에서 발전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⁴⁶⁾ 梵鍾은 범종각에 있으며, 범종각은 일반적으로 不二門과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범당쪽에서 볼 때 범종각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불교의 體用說에 입각하여 볼 때 왼쪽은 體에, 오른쪽은 用에 해당하는데, 소리는 곧 用에 속하기 때문인데, 體는 그것은 본질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이요 변하지 않는 것인데, 用은 작용이다. 항상 體에 근거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범종각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곧 우리들 일심의 작용이요 부처님의 위대한 작용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⁴⁷⁾ 실제의 음악적 悅樂을 만끽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 청각적 음향이 단절되고 난 여백의 세계, 곧 소리의 공백인 無의 세계에 있기 때문이다. 산사의 범종 소리가 구만리 장천까지 퍼진다는 말처럼, 하나의 단음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의 예술적 상상의 나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음향의 공백 속에서 한없는 藝心의 나래를 펼쳐 가게 마련이다.⁴⁸⁾

法鼓는 법을 전하는 북이라는 뜻으로, 불법의 진리

로 중생의 마음을 울려 일심을 깨우친다는 북의 종류에는 弘鼓와 小鼓로 나누고, 암소와 수소의 가죽을 부착하여야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하며, 두드릴 때는 두드리는 부위에 衄자를 태극의 모양으로 등글게 그리기도 하고 진언을 적어 넣기도 하고, 소가죽을 댄 법고는 중생의 제도를 위하여 치는데, 짐승을 비롯한 땅에 사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법고는 예불시간에 제일 먼저 울려퍼지는 것으로, 나무로 된 두 개의 북채로 마음 心자를 그리면서 두드리고, 울림은 一心을 돌아볼 것을 회구하는 뜻이다.⁴⁹⁾

불가에서는 축생중생의 구제를 위하여 불교 예불의식 때 제일 먼저 울리고, 인간의 마음에 항상 축생스러운 마음이 일게 되므로, 이 소리를 듣고 축생스러운 마음이 일게 되므로 이 소리를 듣고 축생스러운 마음을 경계하라는 뜻이 있는 것이다.⁵⁰⁾

雲板은 청동이나 철로써 구름 무늬 모양의 넓은 판을 만들고, 판 위에 보살상이나 음마니반메흠 등의 진언을 새기기도 하며, 가장자리는 두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듯 호위하는 듯한 모습을 조각하고 판의 전체적인 모습이 뭉게구름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雲板이라고 하였는데, 운판이 울리면 공중을 날아 다니는 중생을 제도하고 허공을 헤매며 떠도는 영혼을 천도할 수가 있고, 소리를 들을 때 허공계의 중생은 안식을 얻어서 용이 구름의 사이를 뚫고 승천하듯이 해탈의 세계로 간다는 것이다.⁵¹⁾

木魚는 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정신의 혼수

44) 이성친외3인: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풍남, P. 237, P. 241, 1994.

45) 金仁平: 國樂鑑賞, 서울, 中央大學校出版部, P. 104, 1994.

46) 胡耀: 佛教與音樂藝術, 天津, 天津人民出版社出版, P. 115, 1992.

47) 金鉉堧: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서울, 교보문고, P. 51, 1991.

48) 한명희: 우리가락 우리문화, 서울, 조선일보사, P. 51, 1994.

49) 金鉉堧: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서울, 교보문고, P. 54, P. 56, 1991.

50) 白鍾杰: 佛教四物에 관한 연구- 禮佛儀式에 쓰이는 佛教四物의 演奏法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93.

51) 金鉉堧: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서울, 교보문고, P. 57, 1991.

四物의 演奏法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 14, 1993.

상태를 깨우고 잠과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이며, 木魚는 물고기의 배 부분을 파내고 배부분 안쪽의 양벽을 나무 막대기로 두드려서 소리를 내게 하는 이 목어는 중국에서 유래되었으며 소리는 투박하고 구성지다.⁵²⁾ 木魚 木鐸은 새벽과 저녁 예불과 큰 행사가 있는 경우에 목어를 두드려서 몰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지만, 불교의 입장에서는 覺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고, 목어를 울리는 것은 보살이 되라는 데 있으며, 목어는 비감어린 음성을 토하여 惡業의 중생을 대자재한 불국정토로 인도하는 것이다.⁵³⁾

이들의 소리는 환희의 음악이며, 구도자의 내면 세계가 불교사물악기를 빌어서 울려퍼지는 것으로 부처님의 一乘圓音으로 언제나 중생에게 고하고 있는 진리의 음성이며, 중생은 제각기 자신의 귀로써 佛音을 듣고 자신의 그릇에 따라 불음을 담는데, 그 일음은 각자의 마음 가짐과 수양의 정도에 따라 차츰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3) 불교 四物樂器 소리에 대한 정신의학적인 고찰
불교의 음악 이해에서 음악을 번뇌의 產物로서, 逆으로 음악을 魂을 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이 淨土의 세계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⁵⁴⁾ 음악은 인류의 먼 원시생활 부터,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음악의 주술적인 요소가 강조가 되고, 종교적 도취 내지는 황홀하게 부르짖는 소리로서 출발하는데, 더욱이 鈴이나 鍾이나 太鼓 등의 악기에 의하여 초자연적 음색을 더하게 되고, 穢한 것을 정화하고, 악마를 없애고, 靈을 부르고, 이와같이 聖化 除魔 降靈 呪鬘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은 금일에 불교에도 나타난다고 하였다.⁵⁵⁾

불교 사물의 음은 울울하나 이것은 인간의 욕심을 없애는 효과가 있고, 인간의 무상함을 느껴서 자기을 알게하는 힘이 있는데, 소리를 정신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외부의 소리가 인간의 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인간의 심성의 변화나 잠재적인 심적인 영향

에 의하여 외부로 소리가 발현되는 두가지의 경우로 알수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禮記 樂記編에 哀心の 감정은 그 소리가 嘯以殺(急하고 짧다)하고, 樂心을 감화하면 그 소리가 嘯以緩(부드럽고 미지근한 모양)하며, 喜心이 감화되면 發而散하고, 怒心은 粗以厲(거칠고 엄격하다)하고, 敬心은 소리가 直以廉하고, 愛心은 和以柔하며, 이 여섯가지는 性이 아니고 物에 감화를 받은 후에 움직인다고 하였다.⁵⁶⁾ 후자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종교적인 주문이나, 기도 등에 의하여 내부의 심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수가 있는 것이다. 정신세계에 대한 무한한 자력의 힘을 근간으로 하는 佛敎音樂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물량적 감각의 반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심성으로 스며들어 우리나라는 감응에 불교 음악성의 본의가 담겨져 있다고 하였는데,⁵⁷⁾ 일반적인 소리에 대한 내적 감정의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소리에 대한 내부에서 우리나라는 반응이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건강한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의 원리, 카타르시스, 동질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⁵⁸⁾

음악이 인간의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음악은 사람의 마음과 몸과 감정에 영향을 주고 다양한 경험하는 분야인데, 그것은 무의식을 관통하여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많은 것을 밖으로 나타나게 되며,⁵⁹⁾ 모든 음악의 자극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에 들어오고,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며, 감정과 경험을 조절하여 인간의 모습을 형성시킨다.⁶⁰⁾ 佛敎四物의 소리는 자체의 소리보다는 주위와의 동조된 소리가 무

52) 白鐘杰: 佛敎四物에 관한 연구- 禮佛儀式에 쓰이는 佛敎四物의 演奏法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P. 1993.

53) 金鉉堉: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서울, 교보문고, P. 58, 1991.
54) 菊村紀彦: 佛敎と音樂, 東京, 大藏新書, p. 16, 1983.
55) 小口偉一 監修: 宗敎學辭典,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P. 72, 1989.
56) 李相玉: 新完譯 禮記(中), 서울, 明文堂, P. 209, 1988.
57) 김도완: 禪武學術論集(佛敎音樂의 禪精神考), 第2輯, P. 360, 1992.
58) 임음희: 음악속에 숨은 의학, 서울, 청암문화사, P. 27, 1992.
59) 김군자, 이철규 譯: 자폐아를 위한 음악요법, 서울, 서울서적출판부, P. 13, 1986.
60) 임음희: 음악속에 숨은 의학, 서울, 청암문화사, P. 25, 1992.

의식을 일깨워주며, 자기자신을 알게하여 주는 힘이되며, 禪音樂의 경우는 心性에 관한 정화능력, 미화능력, 결속능력, 응집능력을 지닌 음악의 존재가치는, 다만 예술의 한 분과로서 성립시키는 차원을 뛰어넘어 정신세계의 교량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평안의 세계로 인도해 줄 때, 현대사회에서의 선음악의 가치는 더욱 더 높을 것이라 하였다.⁶¹⁾

佛敎四物樂器중 먼저 法鼓를 대하여 살펴보면, 法華經의 化城喻에서는 法鼓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일었던 격량이 잠잔다고 하였고⁶²⁾, 설이되면 法鼓를 치고, 法鼓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일었던 격량이 잠자고, 무량한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진리가 사람의 마음병을 고쳐 준다고 해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부르며, 의왕의 소리인 법고 소리에는 治病의 힘이 있으며,⁶³⁾ 또한 法鼓는 수도의 집념 인간번뇌의 외향적 호소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法鼓가 지니는 이미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발견이 된다고 하였다.⁶⁴⁾ 法鼓는 기어 다니는 짐승을 제도하려는 뜻에서 두드리고, 법을 전하는 북이라는 뜻으로, 불법의 진리를 북소리에 담아서 미망에 사로잡힌 일체의 중생은 물론이거니와, 짐승을 제도해서 참다운 신앙심을 갖게 만들며, 암수 가죽을 양면에 대서 만드는데, 이것은 소리의 조화내지 陰陽의 조화를 구하자는 사고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소리를 통해서 혼탁하고 번뇌에 쌓인 마음을 일깨우고자 하였다.⁶⁵⁾

梵鍾의 경우는 심산유곡에서 들려오는 梵鍾의 소리 같아서 파도를 그리는 듯 들리고 幽玄清和하여 속되지 않고, 長引屈曲하여 悠長하고 심오한 맛이 있으며, 한국의 梵鍾처럼 인공적이기보다는 자연적이며, 소박하면서도 흙 냄새가 나며, 그러면서도 品位를 잃지 않고 의젓하고 그윽한 맛이 있고,⁶⁶⁾ 梵鍾의 기본 사명은 종교양식에서 無形의 音響을 통하여 유형의 청각미를 인간에게 들려주는 것이며,⁶⁷⁾ 佛心을 중생에게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소리는 梵鍾의 소리에 있는데, 종 하나의 소리가 하나의 성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성

품이 혼합하여 가지고 울려나오며, 소리는 따라서 다섯, 여섯가지의 성품을 동시에 갖고 울려 나오고, 소리표시인 울림현상을 聲表로 구분하고 있다.⁶⁸⁾

木魚는 물 속의 짐승을 제도하려는 뜻에서 두드리고, 변형되어 생겨난 것이 木鐸이고, 목탁은 구도자가 언제나 한몸이 되어 그 소리와 함께 너 나 없이 모든 중생이 함께 성불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는 것이므로, 새벽에 사찰의 경내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못생명을 깨우고 청정함을 갖들게 하는 도량식이나 새벽예불 때에는 어둠이 가고 밝음이 오는 것을 상징화하여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약하게 두드리고 차츰 크게 두드리게 되며, 저녁의 예불 때에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깃드는 것을 상징화하여 처음에는 크고, 세계 끝을 작게 두드리고, 밝음과 어둠, 해와 달 등의 자연의 원리와 음양의 이치에 순응하여 이와 같은 소리의 강약을 둔 것이며, 木魚나 木鐸은 속을 비게하여 空心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는 空音 圓音 佛音으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삼독이 비어 있으므로 공한 마음이며, 그 공한 마음으로부터 사뭇이 없고 허망함이 없는 空音이 우러나올 때, 모든 중생의 業을 녹이고 모든 중생에게 청량과 해탈을 심어 줄 수 있다고 하였다.⁶⁹⁾

雲板은 날아 다니는 짐승을 제도하려는 뜻에서 두드리고, 雲板은 청동이나 철로 만든 구름 무늬 모양의 판을 뜻하며, 소리가 가벼워 하늘을 향하여, 공중을 날아 다니는 중생을 제도하고 허공을 헤매며 떠도는 영혼을 친도할 수가 있다고 한다.⁷⁰⁾

62) 이종기: 법화경, 서울, 일주문, P. 132, 1988.

63) 안길모: 불교와 세시 풍속, 서울, 명상, PP. 117-118, 1993.

64) 권광식: 신라법종의 연구, 慶熙大學敎育大學院, P. 21, 1974.

65) 김현선: 김현선의 사물놀이 이야기, 서울, 풀빛, P. 16, 1995.

66) 한만영: 한국불교음악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14, 1984.

67) 권광식: 신라법종의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P. 2, 1974.

68) 권광식: 신라법종의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P. 41, 1974.

69) 金鉉堧: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서울, 교보문고, PP. 63-64, 1991.

70) 金鉉堧: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서울, 교보문고, P. 15, 1991.

61) 김도완: 禪武學術論集(佛敎音樂의 禪精神考), 第2輯, P. 364, 1992.

佛敎四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형편이며, 농악에서 사용이되는 사물은 용어 자체부터가 불교에 의하여 차용이 되었음은 남사당패 연구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였고, 농악의 사물 소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악기의 구성은 쇠 장고 북 징으로 구성이 되고, 쇠와 징은 리듬을 잘게 가르고, 징은 리듬을 한 무더기로 감싸고, 북은 장고의 원박을 도워준다고 하였다.⁷¹⁾

농악의 사물놀이의 네가지의 악기가 동시에 이루어 지니, 이와같이 四物의 대립적 변별성은 분명하나, 사물놀이에서 사물의 운용은 대립적 변별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립하면서 발전되고 조화로운 음악을 창출하며 더욱이 서로가 대립하기 때문에 조화가 극치를 이루고, 四物은 흔히 네가지 우주 현상과 비교되고, 우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네가지의 연장인데, 쇠가 징징거리는 현상이 천둥, 번개와 흡사하고, 징이 지속적으로 울리는 현상은 바람과 유사, 장고의 잦게 몰아가는 현상이 비와 비슷, 등실되는 소리를 주는 것은 북이니 구름과 비교가 된다고 하였다.⁷²⁾ 이상에서 불교의 사물의 악기를 살펴보면, 불교의 목적은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이고, 부처님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을 천도하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자비와 희생의 정신이 불교사물에 상징적으로 깃들여 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종과 북을 설치하여 인연있는 중생이 귀로 들음으로써 그 마음을 경각시켜 대개 탐내는 중생들로 하여금 六塵과 六根으로 공덕을 닦게하여 감화를 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四物의 입삼적인 응용위한 문헌적인 근거는 [禮記: 樂記] “종의 소리는 힘차게 느껴지므로 군대의 구령 소리를 떠오르게 하고, 따라서 용기가 충실함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종소리를 듣고 전쟁터의武功을 생각하게 한다.磬의 음은 명랑하게 울리므로 사물을 분별함으로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군자는 경소리를 들으면 국경에서 죽은 무신을 생각하게 된다.絃의 음은 哀怨의 정을 불러일으킴으로 廉直하여 불행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해서 점점 뜻을 굳힐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군자는

琴瑟의 소리를 듣고 굳은 節義를 지키는 충신을 생각하게 한다. 피리의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집회를 생각하게 한다. 鼓鼙의 소리는 시끄러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前進를 촉진하기 좋으며 그래서 군자는 고비의 소리를 듣고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를 생각하게 한다. 이리하여 군자가 음악을 듣는 것은 그 가지가지의 소리를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각기의 소리가 내 심정에 맞는 바가 있음을 깨닫고 즐기는 것이다.”⁷³⁾ 라하여 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나, 樂學軌範에서는 3가지를 더 추가하고있는데, 土音은 太太하며, 濁하고 寬大하여 지고, 匏音을 들으면 啾啾(가늘게 우는 소리)해져, 생각하고 공경 사랑하게 되며, 木音은 直直하고 清潔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⁷⁴⁾ 이는 바로 八音을 八卦 八風에 비유하여 八音圖說에 기록이 되어있다. 종소리는 용기를 느끼게하는 경우이나, 이는 작은 종의 경우이고, 범종의 경우는 이와 달리 가라 앉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磬의 소리는 憂鬱症의 경우에 좋고, 범종은 양적인躁한 상태나, 자율신경이 항진된 경우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북소리의 경우도 전진하고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우울증이나 자폐증등 음적인 질환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나무 소리는 끈고 청결한 의미로 화병이나 울체로 소통시켜주는 의미가 많다고 생각된다.

한의학적으로 음악은 인체의 생리리듬과 법칙에 의해서 악곡 “宮,商,角,徵,羽”의 서로 다른 調式, 박자의 선율을 이용하여 樂療의 이론을 도출해내고 ‘五音導引’요법을 창조하여 인체심리에 작용하게 하여 유기체 내장의 기능활동에 영향을 미쳐 편향을 바로잡고, 폐단을 고치고, 平秘陰陽, 질병을 치료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⁷⁵⁾

“同聲相應” “同氣相求”의 원리를 빌려 “五音導引”의 방법을 창조하여 각종 情志질병을 치료하고 인체로 하여금 “氣和” “體柔” 하게 되어 “節松筋柔心平”의 가장좋은 상황에 이르게 하여, 중국에서는 “樂療”원리는

71) 김현석: 사물놀이란 무엇인가, 서울, 귀인사, P. 20, 1988.

72) 김현석: 사물놀이란 무엇인가, 서울, 귀인사, P. 21, P.23, 1988.

73) 李相玉: 新完譯 禮記(中), 서울, 明文堂, PP. 243-244, 1988.

74) 樂學軌範, PP. 134-137.

75) 李浚川主編: 情志醫學, 中醫古籍出版社, 1992.

인체생리 기능과 병리변화와 五音,五色,五行,生克 등의 방면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형성된 것을 인식하는데 있다. 當代에 주계적으로 유행한 “音色療法”의 가장 최초의 이론적 기초라 할수있다.⁷⁶⁾

불교사물악기의 소리에 대하여 氣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雲板(陰中之陽) 淸上

木魚(陽中之陰) 直直

鼓(陽中之陽)

梵鍾(陰中之陰) 沈

4. 結 論

1. 禮記나 樂學軌範에서 소리에 대한 문자의 표현은 氣의 표출로 나타내고 있다. 氣에 가장 가까운 매체는 소리이므로, 氣의 불균형으로 오는 질환은 더욱 소리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2. 佛敎의 四物樂器를 이용한 心的 不均衡 치료의 근거는 禮記의 樂器編에 나타나 있다.

3. 木音(木魚, 木鐸)의 성질은 울체, 화병 등의 기의 소통이 안되는 경우에, 金音(雲板, 梵鍾)은 性情이 항진되는 躁症이나 자율신경의 항진에 사용할 수가 있고, 운판은 범종과는 달리 위 氣가 침체된 경우에, 革聲(法鼓)는 의욕이 상실되거나, 기의 침체된 경우에 각각 응용할 수가 있다고 사료된다.

4. 각각의 종교에 알맞은 종교의 소리를 이용한 소리치료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의 효과는 소리를 받아들이는데 마음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으로, 소리와 마음 그리고 장기와의 상관성에 대한 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된다.

76) 李浚川主編: 情志醫學, 中醫古籍出版社, PP. 61-62, 1992.

參 考 文 獻

- 1) 김군자, 이철규 譯: 자폐아를 위한 음악요법, 서울, 서울서적출판부, 1986.
- 2) 김도완: 禪武學術論集(佛敎音樂의 禪精神考), 第2輯, 1992.
- 3) 金仁平: 國樂鑑賞, 서울, 中央大學校出版部, 1994.
- 4) 김현석: 사물놀이란 무엇인가, 서울, 귀인사, 1988.
- 5) 金鉉竣: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서울, 교보문고, 1991.
- 6) 노동은: 한국근대음악사(1), 서울, 한길사, 1995.
- 7) 盧台俊 譯解: 新譯道徳經, 서울, 흥신문화사, 1987.
- 8) 반광식 譯: 腦內革命, 서울, 사람과책, 1996.
- 9) 서우석 譯: 음악학이란 무엇인가, 은애, 서울, 1981.
- 10) 釋秀雄: 觀無量壽經講話, 서울, 흥법원, 1987
- 11) 柳聖泰: 東洋의 修養論, 서울, 學古房, 1996.
- 12) 이성천외3인: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풍남, 1994.
- 13) 李相玉: 新完譯 禮記(中), 서울, 明文堂, 1988.
- 14) 이종기: 법화경, 서울, 일주문, 1988.
- 15) 임음희: 음악속에 숨은 의학, 서울, 청암문화사, 1992. 장사훈: 국악총론, 서울, 정음사, 1985.
- 16) 조운용: 건강생활을 위한 음악요법 백과, 서울, 한성음악출판사, 1993.
- 17) 한만영: 한국불교음악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 18) 한명희: 우리가락 우리문화, 서울, 조선일보사, 1994.
- 19) 권광식: 신라법종의 연구, 慶熙大學校敎育大學院, 1974.
- 20) 白鐘杰: 佛敎四物에 관한 연구- 禮佛儀式에 쓰이는 佛敎四物의 演奏法을 중심으로-, 영남대학 교 교육대학원, 1993.
- 21) 漢韓大辭典編纂部: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2.
- 22) 原本國語國文學叢林(原本樂章歌詞, 樂學軌範, 時用 樂樂譜), 서울, 大提閣, 1985.
- 23) 小口偉 · 監修: 宗敎學辭典,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89.
- 24) 永田 晟: 健康 體力つくりハントフック, 東京, 大修

- 館書店, 1983.
- 25) 日原利國: 中國思想辭典, 東京, 研文出版, 1984.
- 26) 菊村紀彦: 불교와音樂, 東京, 大藏新書, 1983.
- 27) HIMALAYAN INTERNATIONAL INSTITUTE
OF YOGA SCIENCE & PHILOSOPHY OF THE
U.S.A, Mantra Meditation, Honesdale,
Pennsylvania, 1992.
- 28) 胡 耀: 佛教與音樂藝術, 天津, 天津人民出版社出版,
1992.
- 29) 周文柏 主編: 中國禮儀大辭典, 北京, 中國人民大學
出版, 1992